

미래 투자대상 산업 결정

이 모델은 경제성장, 스테그네이션, 그리고 경기후퇴라는 세가지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어떤 산업이 1990년 대에 새롭게 확장된 기회를 가져올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에 만들어 졌다. 산업군 간 상대적인 매력은 다음의 4가지 주요인에 의해 영향 받을 것이다: 경제, 정치, 사회, 기술. 하부 요인들은 필요시 추가될 수 있다. 경제적 하부요인으로는 고용상황, 인플레이션 추세, 이자율,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. 정치적 하부요인으로는 규제와 탈규제에 대한 현정부의 입장, 선출직 공무원 들의 최근의 이념적 성향, 그리고 국제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. 사회적 하부요인으로는 인구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요구변화 등이 있으며, 기술적 하부요인으로는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경쟁력 유지 능력,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보 능력 등이 고려될 수 있다.

먼저 어떤 산업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개별적인 모델을 만들었다. 그 결과 다음의 6개 산업이 선정되었다: 인프라스트럭처 (도로, 교량, 건물 등을 건설하거나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), 무역 (국제 무역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회사), 환경정화, 은행, 컴퓨터, 그리고 실버산업 (늘어 나고 있는 55세 이상 인구와 75세 이상의 새로운 노인 그룹을 상대로 사업하는 회사). 위 산업들은 새로운 시장과 변화하는 규제정책,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증가하고 있는 수요, 그리고 향후 몇 년 사이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변화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.



대안
사회기반시설
국제거래기회를 활용할 준비된 회사
환경 정화
은행 산업
컴퓨터 산업
노인층을 돌보는 회사